

중국 15억 인구 향한
 복음화 결단의 시간
 대만 600 교회 참여
 중국 한족·소수민족
 지도자들도 함께 해



2015GMI선교대회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약 2천 5백여 명의 교계 지도자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및 화교권 선교를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 및 화교권 복음화 위한...대만 GMI 선교대회

'2015년 대만 GMI 선교대회'가 8월 18일 부터 21일까지,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서 약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열렸다. 이 GMI 선교대회에는 대만 GMI 신학교를 졸업 (547명)하거나 재학 중 (167명)인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대만 현지의 600여 교회에서 2,230여 명의 성도들도 참여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했다. 또한 중국에서 110명의

한족과 소수민족 지도자들, 미국과 한국 및 기타 해외에서 모인 160명의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되어, 대만의 복음화와 대만을 통한 중국 및 화교권 선교에의 헌신을 위한 귀한 은혜와 결단의 선교대회로 진행됐다. 이 대회의 비전은 대만 교회들과 성도들이 중국의 약 15억 인구 (2015년 통계로는 약 13억 7천만 명으로 되어 있음)를 향한 선교 (전

체 인구 중 약 5% 정도를 기독교인 <삼자교회 및 지하교회 포함>으로 추산 함)와 대만 (전체 인구 약 2,400만 명 중 약 6%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추산 함)의 복음화 및 대만을 제외한 약 4,600만 명의 화교들(대만 포함시는 전체 약 7천만 명(이 중 5-10%정도를 기독교인으로 추산)을 향한 전도 및 선교를 자발적, 전략적, 헌신적으로 감당하게 함이 그 비전이었다.

즉, 대만 교회들과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과 사역이 될 때, 대만 복음화와 중국 및 전 세계 화교권 복음화의 선타 역할을 하게 되며, 더 나아가 세계선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화권 교회들과 성도들이 한국 교회 및 성도들과 서로 연합하여, '중국내지 선교의 아버지', '믿음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처럼 주님의 지

상명령을 수행하는데 앞장서게 하고자 함이 GMI선교대회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다. 올해 열린 대만 GMI선교대회도 그 뜻을 향한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결단 및 헌신의 시간을 통해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헌신된 선교사, 주의 종, 성도들이 많이 나와 중국 복음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사진 및 자료제공] GMI(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양태철 목사

“미 제일갈보리교회”

PCUSA 탈퇴 결의...교단 재산 신탁 거부

미주리의 한 장로교회가 교인 투표 끝에 교단을 탈퇴하기로 했다. 교단 내 동성애 수용 등 '신학적 이견'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링필드에 소재한, 교인 1,700명 규모의 제일갈보리장로교회는, 주일인 지난 16일 미국장로교(PCUSA) 탈퇴를 위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493표 반대 185표로 탈퇴를 결의했다. 이 교회 앤드류 채니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

인들은 약 한 달의 고심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가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교단이 개혁신학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 교회는 교회 재산에 대해 교단과 소유권을 다투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몇 년 동안, 약 200개의 교회가 PCUSA로부터 탈퇴했다. 이는 교단이 동성애 수용에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에 반발하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 화장실 혼용(AB1266) 저지 새 법 발의

주민투표 상정 위한 서명 운동...트랜스젠더 화장실 법 무력화 목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화장실법(AB1266)의 효력을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전개 중이다. 2014년 1월 1일 발효된 이 법에 대항하는 '사생활 보호법(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을 주민들의 힘으로 발의하려는 것이다. 2013년 7월 압도적인 표 차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한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은 2013년 8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남가주 한인교회에서는 이른바 '공립학교 남녀화장실 공용법'이라고 소개된 이 법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트랜스젠더 학

생이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하는 성별의 스포츠 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인 경우까지 포함하기에 보수층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법에 따르면, 극단적인 경우, 남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 탈의실을 여학생들과 함께 동시에 사용하겠다고 해도 학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거부할 시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TVNEXT의 사라 김 대표는 “남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혼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사악하다”고 비판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말’에만 의거해 혼용을 허락해야 하며 나아가 학생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혼용을 권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이 법이 시행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화장실, 탈의실 사용이 매우 불편하다고 그들의 부모들에게 호소하고 있으며 [관련기사 2면에 계속]

나라정비 타이어 데리점
GOOD 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박영심 간호부장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기독교 회관 건립 위해”

기금 모금 위한 일일식당

남가주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미기독교회관 건립을 위한 일일식당이 또 열린다.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인타운 내의 식당 '미락'에서 열리게 될 일일식당의 수익금은 회관 건립 기금으로 적립된다.

현재 회관 건립을 주도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인 '한미기독교회관(Korean American Christian Center)'이다. 과거에도 수 차례 기독교 회

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종종 이를 위한 모금 활동도 있었지만 어떤 결실이 맺어지진 못했다. 그러다 남가주목사회가 이 사업에 뛰어 들었고 제46대 남가주목사회는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전 교계의 지지를 얻고자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단체를 설립할 당시 남가주목사회 회장이었던 이운영 목사(한미장로교회)가 현재 대표로 있으며 그 당시 모금된 2만3천 달러는 여전히 이 단체의 계좌에 예치돼 있다. 이목사는 “남가주 교계가 실질적으로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이 8월 26일 한미장로교회에서 일일식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할 수 있도록 회관 건립에 뜻을 모으고 심시일반 모금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엄규서 목사(남가주목사회 수석부회장)는 “모금 자체보다는 회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가주 교계가 연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백지영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는 “남가주목사회와 함께 남가주교협, 남가주여성목사회, OC목사회 등 교

계 단체가 연합한다”고 부연했다. 회관 측은 향후 이 교계 단체들의 대표급 인사들을 운영 이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광복 70주년 기념 및 남북통일 기원

길갈미션 후원...미국 남북종단 1,200마일 사이클링 프로젝트

“AB1266 저지 새 법 발의”

주민투표 상정 위한 서명운동 전개 중



(왼쪽으로부터 감사한인교회) 정우영 목사, 문용영 목사, 전근영 목사, 노성우 형제 (미디어담당)

오렌지 카운티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 문용영 목사의 ‘광복70주년 기념 및 남북통일 기원 미국 남북종단 1,200마일 사이클링 프로젝트가 15일 시작되어 26일 현재, 주일 휴식을 제외한 9일 동안 약 1,000마일을 달려 가고 있다. 1,200마일 고지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 셈이다.

문용영 목사는 철인 3종경기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다.

문용영 목사의 사이클링은 15일 이곳 감사한인교회를 떠나 빅토빌, 네바다 주 리노를 거쳐 26일 현재 오레곤 주 살렘까지 달려갔다.

고도 8,000피트의 비숍 산맥을 두 개나 넘고, 폭염과 사막의 모랫바람을 질주하며, 손이 짝짝 달라붙는

강추위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문 목사의 두 발 자전거는 지칠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오레곤 주의 아름다운 숲길을 즐긴 겨울도 없이 5,100피트 높이를 정점으로 한 내리막길은 거센 파파람으로 문 목사의 발목을 잡았지만 역부족이었다. 문 목사의 사이클링 프로젝트 성공을 응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힘이 되어 문 목사를 굳건히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1,200마일 완주의 목적인 워싱턴 주 시애틀/타코마를 향해 문 목사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페달을 밟고 있다. 그리고 문 목사도 문 목사를 곁에서 직접 동행하며 응원하는 팀원들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기도하고 있다. 단 하루도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 없었던 지난 여정이, 남은 기간에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주가 ‘북에서 남으로’ 바람을 등진 사이클링 프로젝트가 아니라, ‘남에서 북으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통일을 위한 기도’이기에 의미가 있고 값진 것이 될 것이다.

이 사이클링 프로젝트의 후원금은 길갈미션 ‘감사의 집’에 전해질 예정이다.

길갈미션은 2005년 6월, 홍종철 장로에 의해 세워진 비영리 단체로서 먼저 중독의 치유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크리스천 12 단계를 함께 배우며 실천함으로써 중독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감사의 집(House of Thanksgiving)은 그 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곳이다. 완벽한 일과표에 의하여 생활하며 점진적으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문의는 대표전화: 562-862-2200/솔: junoh999@yahoo.co.kr/마약: jc@gilgal.org/도박: philo1202@hanmail.net 이다.

이영인 기자

[1면으로부터 계속] 나쁜 마음을 가진 학생에 의해 화장실이 성 폭력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TVNEXT 등 여러 보수단체들은 최근 프라이버시 포 올(Privacy for All)이란 단체를 중심으로 이 법을 무력화 하려는 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고자 한다. 이 사생활 보호법은 공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정부 소유지 내에서 사람들이 생물학적 성에 근거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다른 성별의 사람과 함께 사용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등의 혼용을 금지해 트랜스젠더 화장실법의 효력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단, 성 변경을 위해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성 변경을 위한 청원을 낸 경우에는 ‘변경 중’, 혹은 ‘변경된’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트랜스젠더(trans-gender)가 아닌 트랜스섹스(trans-sex)의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투표에 상정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서명 수 36만 5,880개가 채워져야 한다. 프라이버시 포 올은 현재 여러 단체, 교회와 연합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는 트랜스젠더 화장실법을 저지하려 했던 당시 발생했던 친동성애 세력의 막강한 공세가 큰 장애다. 프라이버시 포 올의 전신인 프라이버시 포 올 스튜던츠(Privacy for All Students)는 이 법의 의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 법을 주민투표에 회부해 폐지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당시는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 50만 4,760명의 서명이 필

요했고 이들은 총 61만 4,311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서명에 대해 정부는 초고강도의 유효성 검사를 실시해 무려 13만 6,662개 서명을 무효 처리했다. 여러 논란 끝에 2014년 2월 말까지 이뤄진 재검표에서는 최종 48만 7,484개 서명만 남아 주민투표 상정은 좌절됐고 결국 이 법은 여전히 효력을 지니고 있다.

주민투표에 어떤 사안을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 수는 바로 직전에 이뤄진 주지사 투표자 수의 5%로 정해진다. 2013년 이뤄진 서명 운동은 2010년 주지사 선거를 기초로 했기에 50만 4,760명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이번엔 2014년 선거를 기초로 하기에 36만 5,880명의 서명만 있으면 주민투표 상정이 가능하다. 보수단체들은 서명 수가 13만 8천 가량이나 줄었기 때문에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지만 2014년 무려 13만 이상의 서명이 무효 처리된 악몽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11월 15일까지 50만 명 서명을 받고 자체 검사를 거쳐 20일까지 주정부에 제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인들은 TVNEXT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 www.tvnext.org에서 서명 용지를 배부하고 서명 시 주의 사항 등을 공지하고 있다. 또 서명 운동 캠페인 센터로 섬길 교회와 단체를 모집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전통적인 가정 가치관과 배치된 다양한 법들이 통과되었다.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교육법(SB48), 동성애 청소년 치료 금지법(SB1172), 주정부 발급 문서에서 남편과 아내란 명칭을 제거하는 법(SB1306) 등이 대표적이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비전교회

남가주비전교회(송상현 목사)가 오는 30일(주일) 오후 4시 안민옥, 윤자넷 집사를 시무권사로 세우며 감사예배를 드린다.
주소: 4120 W. Pico Blvd. LA, CA 90019
문의: 818-522-6469

호스피스 세미나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주최 호스피스 세미나가 열린다.
일시: 8월 29일(토) 오전 10-12시
장소: 로스앤젤레스한인회관1층
강사: 씨에라 호스피스 강사진
주소: 981 S. Western Ave. LA, CA 90006

성경스토리텔링

전도와 주일학교 교사 교육에 도움될 김연수 선교사 초청 성경스토리텔링 워크샵이 열린다.
일시: 9월 4일(금) 오후 7:30-10시, 5일(토) 오전 10-12시, 오후 1-6시
장소: 히스교회(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단 9:24)

미주 목회자를 위한 특별 성경 세미나

일시: 2015년 9월 14일(월) 오전 10:00-오후 3:00
장소: 엘에이 세계아가페선교교회
담임목사: 김요한(213)368-7991
933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남가주 한인목사회 주관으로 능력의 종 라홍채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9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3시까지이며 회비 무료, 점심을 제공하오니 선착순 100명으로 초청합니다. 부디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야에 거쳐 다니에 계시록에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초청강사: 라홍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자

강사이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미국테네코 석유회사 근무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
- 현 뉴욕만민제자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남가주목사회 회장

연락처: (323)708-9191
김영구 총무: (310)404-6219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P.O.Box 610179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주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국민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교일보 크리스찬헤럴드 크리스찬위클리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다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심부름꾼에 불과한 걸요” 한국 홀사모 자녀들이 가슴을 넓히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갖도록 돕는 ‘꿈땅 프로젝트’.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고단한 삶을 꿋꿋이 꾸려가는 홀사모 가정들을 위해 2003년 남주주광영교회 정한나 사모와 정우성 목사가 시작한 작은 섬김은 2007년 그 자녀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섬기는 ‘큰 일’로 발전했다.

■ 저 낮은 곳을 향하여 <4>
꿈땅 프로젝트
대표 정한나 사모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지 롬바드 꽃길 앞에 선 한국 홀사모 자녀들과 정한나 사모(오른쪽에서 네 번째). 이들은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갔다.

홀사모 자녀의 외로운 가슴에 비전을 심다

7월22일-8월17일 26박 27일간 열린 올해 꿈땅 행사에는 대부분 중고생인 7명의 홀사모 자녀들과 비슷한 환경의 여집사 자녀 1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3주간 시미밸리의 크리스천스쿨에서 미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영어, 과학, 미술, 성경 등을 배우고 방과 후에는 보이츠&걸스 클럽에서 수영, 게임, 연극 등을 하면서 알찬 여름을 보냈다. 디즈니랜드, 사이언스센터로 필드트립을 가서 신바람을 내기도 했다.

특히 중상류층 백인 크리스천 가정에서 민박하며 미국의 속살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생활 중에 서양문화의 좋은 점을 배우고 주일이면 ‘미국 엄마’ ‘미국 아빠’ ‘미국 형제’라고 부르게 된 호스트 가족들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까지 참석했다.

“섬김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호스트 가정들은 아이들에게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정한나 사모는 “그분들은 가정을 오픈하고 매일 식사를 차려 주

한국 중고생 8명 미국으로 초청해
수업 민박 통해 배움의 기회 선사
비전대회에서 강력한 도전 주기도

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가 하면 주말에는 캠핑이나 타주 비행기 여행을 시켜주는 등 생면부지의 아이들을 지극 정성으로 섬겼다. 모두들 영양을 고려한 런치를 싸주었으며, 따뜻한 음식을 먹으라고 식사시간 직전에 배달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호스트 가정들은 헤어질 때는 신발, 옷, 가방, 농구공 등 선물까지 안겨주어 학생들을 감동으로 눈물짓게 했다. 학생들은 학예회에서 미국인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꿈땅 프로젝트에는 남주주광영교회 교인들도 가세,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꾸러미를 학생들에게 건네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장로 가정 하나는 바닷가 집에서 아이들을 재우는 등 수고를 감당한 가운데 대학 교수인 장로의 부인이 자신의 거친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의 은혜를 학생들 앞에서 간증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마지막 주간에 요세미티와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한국에 돌아가면 성숙한 모습으로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꿈땅은 소명을 받고 목회에 전념하던 아버지를 여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지...’라는 원망을 한 적도 있는 이들이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과거에 미국에 왔던 아이들 중에는 한국으로 돌아간 뒤 열심히 공부해 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한 학생, 영어에 취미를 붙여 영국 유학을 간 학생 등도 나왔다.

지난 2013년에는 인도에서 34명의 홀사모 및 자녀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기도 했던 꿈땅 프로젝트는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다.

“제가 인도 행사 이후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국의 홀사모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꿈땅을 못한다’고 선포했지요. 그 말을 들은 사모들은 저를 붙잡고 영영 우셨고요. 그 결과 작년엔 행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우리 큰 딸 베키가 25년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딸애가 가족들 요리도 해 주면서 잘 하다가, 32일째부터는 물도 토하는 등 완전히 탈진했어요. 마지막 5일간은 아예 드러누웠고요. 그때부터 온 식구가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는 ‘제발 우리 딸 살려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땅과 관련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홀사모들을 네게 맡겼는데 몸이 힘들다고, 개교회 사역이 바쁘다고 그만 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면서, 저는 칭찬은커녕 꾸지람을 하시는 하나님이 섬ষণ하게 느껴져 따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일을 지금까지 내가 했지. 네가 했나?’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요. 금식이 끝난던 3월 17일부터 딸을 위해 40일 보식을 만들어

주면서 꿈땅 준비에 들어갔어요. 본래 전년도 11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홀사모 가정에게는 50만원씩만 부담시키고 독지가들과 가족들의 기부로 나머지 경비를 충당한 정한나 사모는 강력한 영적 도전을 주는 비전대회를 통해 “너희도 부부 선교사로 조선에 왔던 부모에게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의사가 된 뒤 한국 최초의 결핵요양소를 세워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셔우드 홀처럼 될 수 있다”는 말로 아이들의 가슴에 꿈을 심어 주었다. 또 학생들에게 ‘아빠에게 편지 쓰기’를 하도록 한 뒤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그 내용을 나누게 하고는 “아빠와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매일 대화해 보라. 하고픈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하고 아빠의 반응도 상상해서 써 보라”고 가르쳤다. 너무 어려서 아버지를 잃는 ‘아빠’를 한 번도 못 불러본 아이도 섞여 있는 학생들은 세상 모든 아버지가 다 죽는데 자기 아버지는 조금 일찍 그 일을 맞은 것뿐이고 아버지는 지금은 천국에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용기백배하게 됐다.

놀라가는 마음으로 왔던 아이들은 귀국 직전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의기소침해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절망의 이유가 아닌 자랑거리가 됐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땅에 안 계시지만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평생 갈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간증들을 쏟아냈다. 또 “엄마 없이는 못 살 줄 알았는데 혼자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나의 약점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꿈땅 프로젝트가 크리스천 독지가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할 이유다.
 김장섭 전문위원



시미밸리에 있는 미국인 교회에서 열린 학예회에서 민박을 제공했던 가정의 식구들과 한인학생이 음식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다.

천천히 다 돌려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 단체는 특별한 혜택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Emerson iPrint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Simitri bizhub MarketPlace



갓스이미지가 지난 15일 라미라다극장에서 25주년 기념 공연을 하며 아프리카 우물 개발 후원에 나섰다.

갓스이미지, 아프리카에 우물 개발 후원 공연

갓스이미지(God's Image)가 공연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잠비아를 돕는다. 미주 최대의 청소년 문화사역 단체인 갓스이미지는 지난 15일 라미라다극장에서 25주년 기념 공연을 했고 그 수익금 중 4천 달러를 굿네이버스에 기탁해 잠비아에 우물을 파는 일에 사용키로 했다.

2012년 이래 굿네이버스의 홍보대사를 맡아온 갓스이미지는 각종 공연 수익금으로 현재까지 아프리카 차드에 4개의 우물을 개발한 바 있다.

기념 공연에서는 220여 명의 단

원들이 찬양과 댄스 공연을 선보였고 약 2천여 명의 관객이 동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고 관객과 단원, 부모들이 뜻을 모아 4천 달러를 조성했다.

대표 변용진 목사는 "갓스이미지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빈곤 어린이들의 상황을 알릴 뿐 아니라 후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2009년부터 오염된 식수로 고통 받는 오지의 주민들을 위해 우물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차드, 말라위, 잠비아, 도

미니카공화국 등에 251개의 우물을 개발했다.

하나의 우물이 개발되기까지는 후원에서 지역 설정, 주민 교육, 펌프 설치 등 약 3-6개월이 소요되지만 일단 개발이 완료되면 한 마을 주민 수백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각종 수인성 질병이 예방되며 물을 얻기 위해 어린이들이 먼 거리를 왕래하지 않아도 되기에 각종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학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굿네이버스 후원 문의) 1-877-499-9898 (교감)



선한목자장로교회의 2014년 3월 23일 공동의회 모습. 당시 투표 끝에 교단 탈퇴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PCUSA 교단 탈퇴 선한목자교회 소송

교단 탈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ECO(복음주의연합장로회) 소속 선한목자교회와 PCUSA(미국장로교) 소속 선한목자장로교회가 결국 법정으로 나가게 되는 형국이 됐다.

고태형 담임목사와 성도 대다수가 속한 선한목자교회 측이 현재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PCUSA에 계속 남아있고자 하는 선한목자장로교회 측이 건물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구 선한목자장로교회는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PCUSA 탈퇴를 추진했으나 교회 내 일부 성도들의 반대로 인해 노회로부터 탈퇴에 대한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갈등을 겪어 왔다.

결국 구 선한목자장로교회 성도들 중 교단 탈퇴를 찬성하는 이들은 교회명을 '선한목자교회'로 바꾸고 5월 21일자로 ECO에 가입했고 탈퇴를 반대하는 이들은 여전히 '선한목자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교회가 속해 있던 샌가브리엘노회 측은 행정전권위원회(AC)를 구성하고 교단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 재산 환수 절차를 시작했다.

6월 16일자 AC의 결의문에 따르면, "고태형 목사는 PCUSA의 관할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ECO에 가입한 교인들은 더 이상 PCUSA 소속 선한목자장로교회 교인이 아니다.

따라서 ECO 교회와 PCUSA 소속 행정전권위원회 사이에 재산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정 체계는 이런

처지의 법률적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노회 입장에서 볼 때는 PCUSA 교회 건물을 ECO 교회가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한목자ECO 측은 "당초 교단 탈퇴의 조건 중 하나였던 63만 달러 선교분담금의 2배 이상인 128만 달러를 노회에 납부하며 선한목자PCUSA의 목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회와 선한목자PCUSA는 결국 7월 9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선한목자ECO와 고태형 목사 및 당회원들을 고소했다.

과거 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치른 두 차례의 공동의회 중 2015년 3월 22일에는 성도 745명 중 찬성 709, 반대 33, 무효 30이었고 2014년 3월 23일에는 성도 817명 중 찬성 738, 반대 74, 무효 5가 나오는 등 선한목자ECO의 규모가 선한목자PCUSA에 비해 훨씬 크다.

2014년 당시 공동의회는 노회의 허락과 참관 하에 이루어졌고 노회 역시 이 결과에 따라 교회의 교단 탈퇴를 허락하려 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교단 탈퇴를 반대하고 노회는 교단 탈퇴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면서 최종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ECO는 교회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교회에 부여하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나 과정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김준형 기자

“미주 한인-유대인, 상호 협력 위한 간담회”

LA 이스라엘 총영사관에서 간담회, 한인 종교 지도자들 참석



이스라엘 총영사관에서 한인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회동하고 양 커뮤니티의 협력과 발전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시겔 총영사와 총영사관 관계자들, KCCD 임혜빈 회장과 박종대 이사장, 샘 고 목사(나성한인교회), 마이클 리 목사(나성영락교회), 샘 박 목사(홀리스톤교회), 강일하 목사(CGNTV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미주 한인인과 유대인 커뮤니티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LA 이스라엘 총영사관에서 24일 열렸다. 데이비드 시겔 총영사는 임혜빈 회장 등 KCCD의 지도자들과 한인 종교 지도자들 20여 명을 초청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겔 총영사는 이날 "한인 커뮤니티와 유대인 커뮤니티는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기에 상호 협력해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양 커뮤니티의 차세대 양성에 큰 관심을 보였고 양측은 다음 세대들이 이민 사회 안에서 어떻게 전통을 지켜가며 미국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로 성장할 지를 논의했다. 또 시겔 총영사는 이런 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KCCD와 임 회장 등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특히 남한과 이스라엘은 각각 핵보유국인 북한과 이란에 접하고 있어 국제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다, 시애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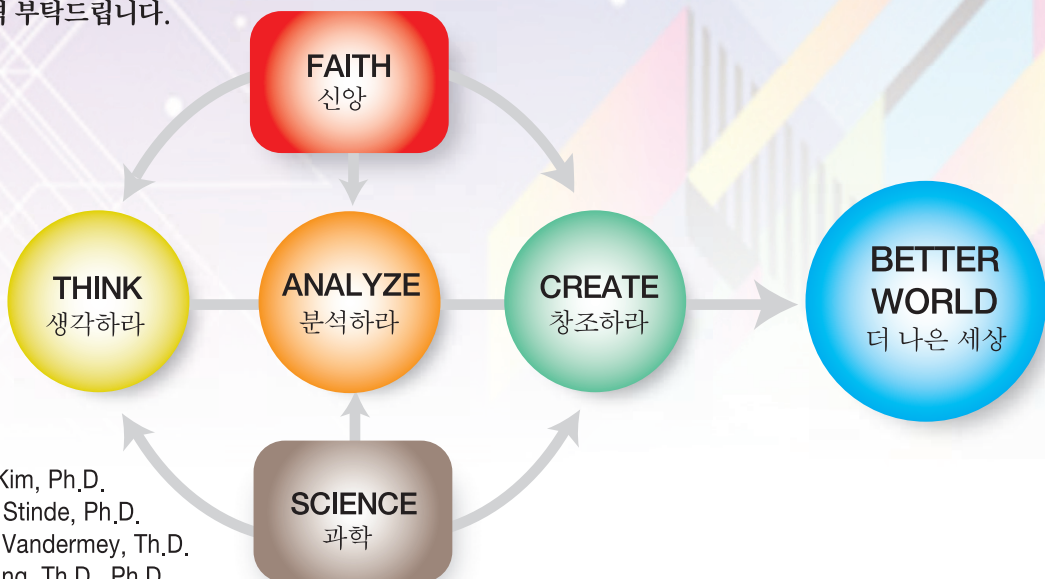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피드몬트 대학교 학생모집

피드몬트 대학교는 글로벌 지식정보시대에 기독교 인재양성목적을 지향하는 기독교 정규종합대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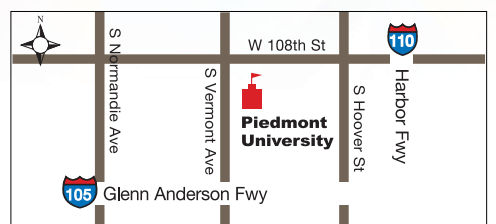
피드몬트 대학교는 정규 종합대학교로서 학문은 **통전, 통합, 통섭의 융합학문(Consilience, 'A jumping together knowledge')**을 추구합니다. 많은 지원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Dr. Casey Kim, Ph.D.
 총장 Dr. William Stinde, Ph.D.
 부총장 Dr. Ronald Vandermey, Th.D.
 Chancellor Dr. Paul Kang, Th.D., Ph.D.

PU 학과별 학사, 석사, 박사 학생 모집(00명)	
PU 한의과대학	PU신학 대학
PU 보육대학	PU음악 대학
PU 선교대학	PU ESL
PU 교육대학	PU ACL

www.piedmontuniversity.com



Piedmont University

1캠퍼스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20
 Tel:(323)777-5269, Fax:(323)777-3681
 Emil :Registrar@piedmontuniversity.com, admissions@piedmontuniversity.com

2캠퍼스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424)257-8176, Fax:(424)257-8136

사사 입다의 생애와 신앙교훈

사사기 11:1-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하나님께 주목받는 입다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서 기생이 낳아준 사생아였고 서자였습니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지략과 힘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성장한 후에 다른 여자에게서 난 자식이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하지 않기 위해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그는 둠이라는 땅으로 갔으나 일자리도 얻을 수 없어 생활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삿 11:3)했습니다. 잡류라는 것은 직장도, 가정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입다가 육의 형편을 따라 살았던 생활은 인생의 밑바닥 생활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 불안, 근심을 끼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며 20-30년이 지났을 때 암몬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도, 무기도 없어 전술전력이 막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지략과 힘이 뛰어났던 입다를 떠올리고는 이 전쟁에 선봉장이 되어 준다면 암몬자손을 문제없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입다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입다를 택하시고 쓰시기 위한 소명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지난 날 자신을 아버지 집에서 내어 쫓았던 일을 생각하며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했습니다. 비록 생활은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왔더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입다의 질문에 길르앗 장로들은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암몬자손이 쳐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암몬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입다로 하여금 믿음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설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바치는 인생

입다는 옛 고향인 미스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했습니다. 그는 장로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분명 지난날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교회에 나왔건 간에 하나님의 계획아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통해 교회로 불러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 갖추기를 서둘러야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그 계획에 따라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입다는 먼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고 합니다. 이에 암몬 자손의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던 중에 에돔 왕, 모압 왕,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의 땅을 통과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모두가 거절했으며 시혼은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여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 치고 이스라엘을 치기까지 했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매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삿 11:21-23) 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삿 11:24)고 말합니다.

입다는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으나 암몬자손의 왕은 이를 거절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여호와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했습니다. 입다는 전쟁할 준비도 안된 군대를 하나님의 뜻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암몬자손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나라의 상황이 급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입다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일임을 입다는 알았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3.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함

입다는 하나님께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던 입다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무남독녀가 춤을 추며 나와 영접을 했습니다.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며 한탄합니다. 그렇지만 그 딸이 하는 말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고 말하고는 두 달 동안 동무들과 함께 산에 가서 자신의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전도서 5장 4-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감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

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고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입다의 딸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을 행하라고 아버지인 입다에게 말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입다의 신앙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약속한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가 되어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동양철학은 운명론을 많이 거론합니다.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운명(運命: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겸손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입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과거가 불행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이후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했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이끌리며 쓰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소명에 감사하며 회개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입다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모든 조건에 합당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미주대한신학대학교 신입·편입·편목 학생모집

한국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한강이남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교)는 1948년 김치선 박사께서 설립하여 수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미주대한신학대학교**는 1995년 총회인준 미주지역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주정부 연방 정부, **주정부교육국인가** (Education Code 9487(e)(l)로 B.A., M.Div., D.Min., D.D.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규 **신학대학교로 신입생, 편입생, 교단교육생(편목)**을 모집하니 수시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미주대한신학대학교의 특징

- 기간 :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누구든지 단기간에 학점을 따면 전과정을 마치고 정식 학위를 받을 수 있음
- 학비 : 본 신학대학교는 교단장학금으로 누구든지 **반값 등록금**으로 공부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처함
- 안수 : 본 신학대학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전도사, 선교사, 목사로 안수를 받아 파송을 받을 수 있게함

DLC Course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경제적, 시간적 여건으로 강의 출석을 할 수 없는자를 위한 과정임 (Distance Learning Course), 이 과정을 통해 본 대학에서는 보내는 학습교재와 지침을 따라 이수하면 학점인정을 받게 됨. 단 7과목(21학점)에 한함. (DLC 과목 : 전도학, 구약개론, 신약개론, 기도학, 모세오경, 공관복음, 바울서신)

총장:권오달박사 / 부총장:박효우박사, 김상돈박사 / 학장:박병구박사 / 이사 :류달열 박사 토랜스분교학장:김영구 박사 / 스포츠선교학장:김영배 박사 / 인랜드분교학장:강부웅 박사
연락처: (562)924-3330(총장), (213)905-0103(학장), (323)731-9819(이사장)

학위과정과 이수학점

남,여전도사 Diploma	60학점	세례교인으로서 학력제한 없음
평신도선교사 Diploma	60학점	세례교인으로서 학력제한 없음
신학사 B.A.	120학점	고등학교 졸업자, 일반대학 2년 수료자
신학석사 M.A.	60학점	신학사학위 소지자, B.A. 학위소지자
목회학석사 M.Div	96학점	B.A., M.A. 학위소지자나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목회학박사 D.Min	48학점	M.Div 소지자로 목회경력 3년 이상된 자
신학박사 D.D	48학점	Th.M 소지자로, M.Div 소지자, D.Min 소지자 추가학점만 취득
교단교육 편목	12학점	조직신학, 교단신학, 교단사, 총회헌법을 Campus, On/Off로 이수 이수증, 이력서, 목사안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남가주노회에 가입됨

- 구비서류 : 이력서, 입학원서(추천서 첨부), 여권사진 2매를 E-mail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서류심사 후 입학여부를 통지함
- 봄학기 : 매년 1월 ● 여름특강 : 봄학기에 이어서
- 가을학기 : 매년 9월 ● 겨울특강 : 가을학기에 이어서

미주대한신학대학교

E-mail : daeshin47@hanmail.net(학교), daeshin47@naver.com
L.A. 본교 CAMPUS: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유치부(Pre K-K)전도사 청빙

선한목자 장로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치부(Pre-K)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 1. 지원자격**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분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양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 3. 주요사역 :**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 4. 제출하실 곳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 최 클락 목사-교육부 담당목사)
- 5. 제출마감 :** 2015년 8월 20일(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선한목자 장로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 제이슨 송의 교육 칼럼

불편한 예수 (X)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이 시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다.

십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학교의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왜 청소년들이 예수를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를) 불편하게 인식하는지 시리즈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호에서 제기한 바,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각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9. 하나님이 선한 분이려면 왜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라 하겠다. 요즘 청소년은 자기 개인의 삶과 주변의 아픔은 물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 전염병, 기근, 대지진, 집단사살, 테러 등을 수시로 접하고 있다. 우선 이런 소식을 자주 접하는 청소년은 둔감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좋고 선한 분이려면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는가?”란 질문을 하게된다.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며 성숙해졌기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여겨야겠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질문 자체엔 문제가 없으니,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 이런 맥락의 질문은 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씨름했던 문제다. 인생의 고통,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볼 때 선과 악의 관계를 다루지 않은 철학가가 없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이야말로 영원한 인간의 숙제이다.

예를들어, 선교사나 전임 사역자 자녀의 경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지만 가난, 거부, 소외 등의 이슈를 접하는 것을 본다. 일반인도 사랑하는 식구나 친지의 건강 문제, 병, 아픔, 그리고 죽음을 체험한다. 친구와의 관계속에서도 왕따, 빈정거림, 거부, 상처를 당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듣고 배워온 선하고 좋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다른 기독교인이 겪는 아픔에 왜 그냥 침묵하고 계신지 질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질문과 고민을 갖고 있는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정말 지혜와 사랑을 겸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돼 줘야겠다.

이 세상에서 고통이란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어떤 종교는 고통이란 마음 자체의 문제이기때, 고통을 부인하고 살아가다 보면 점차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 무신론자들은 고통의 존재 그 자체가 신의 존재, 특히 기독교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고통

이란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라고 믿는 사람도 많다. 욕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인과응보적 답을 욕에게 제시하지 않았나?

철학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칸트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변증학자 칼 루이스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Problem of Pain(고통의 문제)란 책을 통해 성경적으로 고통의 정의를 내리고 올바르게 보는 관점을 제시했다. 오늘 루이스가 다른 내용을 정리해 우리 청소년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다.

루이스는 어린시절 엄마를 잃었다. 그 후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단절된 관계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청년시절엔 전쟁의 무자비함을 체험했고, 성인인 옥스포드 대학에 시절엔 동료 교수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장년기엔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1940년 42살의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를 회고록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전엔 ‘악의 문제’를 다루며 무신론적 주장을 고집했던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고 나중에 언급했다.

고통의 문제의 핵심적 질문은 ‘어떻게 사랑이고,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과 공존하는가?’였다. 다시 말해 ‘선하신 하나님이 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가?’라 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을 다루며 루이스는 인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모든 피조물을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다. 셋째,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다. 넷째,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하지 않은 분이 시던지, 전능하지 않으시던지, 아니면 선하지도 않고 동시에 전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인간의 생각, 즉 인간 중심적 생각을 깊이 다루며 루이스는 언어의 한계, 즉 단어와 표현의 한계를 지적한다. 예를들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조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뜻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인간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하는가? 사랑이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한다면 무조건 상대방의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가? 행복이란 또 무엇인가?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다시말해, 인간이 자아중심적 관점으로 보면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음을 루이스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분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눅 1:37). 그런데,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넌센스 즉, 무의미한, 말도 안되는 행위를 안 하신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동시에 그 자유를 주지 않으실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며 동시에 자신의 선택을 창조주의 뜻으로 돌리는 것이다. 예를들어 한 사람이 선택의 자유를 행사해서 악을 택했다 하자. 그는 이 선택을 창조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왜? 당연히 결정권을 행사한 자가 당사자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이런 논리를 통해 만약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그저 창조주의 꼭두각시나 내지 못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대의 선물인 자유를 주셨다. 인간은 그 자유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고통과 아픔도 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속의 부분인 것이다.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선함과 희락과 사랑의 진미를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또 전능하시다. 우리의 삶엔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는데, 그 자체가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사실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즉, 이시야 53장 3절 말씀처럼 ‘질고를 아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다.

고통과 아픔을 두려워하기에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논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기에 인내와 사랑으로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삶의 성공과 행복은 물론, 아픔과 고통,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마술병의 마법사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것임을 확신한다.

긴장 속에 보낸 한 주간



김영길 목사
감사한교회

지난 주간에는 ‘목함지뢰’나 포격 때문에만 긴장한 것이 아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떠난 ‘광복70주년 기념 및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미국 남북종단 사이클링 프로젝트’ 때문에도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우리 교회에서 시애틀/타코마까지 장장 1,200마일을 사이클을 타고 달려가는 문영용 목사, 그리고 자동차 두 대에 분승하고 뒤따르는 4명의 팀원들로부터 매일 매일 보고를 받으면서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다.

처음 나흘은 화씨 100도가 넘는 광야지역을,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날에는 8,138피트의 고지대를 오르내리면서 달려야 했다. 닷새째 되는 날부터는 산 중이라서 갑자기 아침 기온이 37도(섭씨 영상 2-3도)까지 떨어져서 자전거 운전대에 손바닥이 짝씩 붙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기도했다. 7일째 되는 토요일에는 기온이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서 오레곤 초입에 있는 Klamath Falls까지 140마일을 달렸다고 전 근영 목사가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26일 현재 무려 1,200마일의 전 구간 중에서 1,000마일을 달린 셈이다. 어려운 난코스에 문영용 목사와 팀원들을 보내놓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들의 안전과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이 주간엔 남북한이 긴장상태를 반전시키며 대화의 자리에 마주 앉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확신과 감격을 금할 길이 없다.

www.sellacare.com SEARCH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응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M3® 세트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제품소개



M3

이 영양 보충제는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효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콩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면을 가집니다.



VC 2000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 좋은 Rosehips과 Acerola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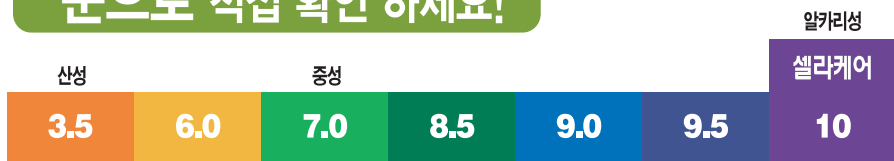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물,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팽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GOLDEN WATER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D는 베타d,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크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크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흡소핑	714.496.7887	토랜스	213.268.0844
시온약국	213.344.973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뉴욕,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LA 57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밸리	818.642.8223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예스약국	323.733.7788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텍사스 (로알백화점)	972.620.2900
LA 다운타운	213.798.3333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캐나다	604.872.1669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로랜하이츠	626.912.5727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우리의 특별한 꿈은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저 부모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My Home Church'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지난 5월에 6주년을 맞은 출석교인 150여명의 규모의 'NEXT사랑의교회'(담임 김일영 목사 · 11 Musick, Irvine)의 DNA는 2세 사역에 올인하는 것이다. 이 교회 담임 김일영 목사는 "어른을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잘한다는 평이 나면 불신자라도 아이들을 데려 온다. 또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면 나중에 어른들도 출석하게 된다"는 말로 자녀들에게 집중하는 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세 사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NEXT사랑의교회 교인들.

부모 자녀 모두 행복한 교회 만드는 것이 꿈

▣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1>

NEXT사랑의교회

"그 덕에 우리 교회에는 '생짜' 신자들이 꽤 있습니다. 설교 중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한 마디로 전통적인 교회에 잘 못 어울리는 사람들도 와서 부담 없이 녹아들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훈련 받고 변하게 됩니다."

이같은 분위기 덕에 '3대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는 NEXT사랑의교회의 캐리커가 됐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가 꼭 가야 한다는 자녀의 손에 이끌려 최근 끝난 '특새'(특별새벽부흥회)에 2주간 개근하는 기적도 그래서 가능했다. 2세 사역 집중이 불신자와의 접촉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 목사는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가치는 불신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30마일을 운전해서도 온다. 맹모삼천지교라고 이사를 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넥스트 키즈 클럽'을 운영하고 토요일 한국학교도 열지만, 이 교회의 극진한 2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절기 때와 2개월에 한 번 정도 마련하는 3대가 함께 하는 주일 '테마 예배'.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30분 일찍 오는 이 예배는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중언어로 진행된다. 1세와 2세가 함께 찬양팀을 꾸리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동원되는가 하면 주중에 집에서 실천할 과제가 주어지고 때로 액티비티도 포함돼 아이들이 정말 신나한다.

아이들이 추억의 뽕기를 하고 망가끼, 실로 연결한 종이컵을 통해 대화하기 등의 놀이를 하면서 부모의 어린 시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 것도 이때다. 열매는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예배는 즐거운 것이다'는 깨달음이다. 여기엔 유초등부를 맡고 있는, 김 목사의 부인 김정기 사모(USC 노인학 교수)의 많은 수고도 녹아 있다.

이 교회는 냉장고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치킨 너깃을 늘 쟁여놓고 빠듯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서마다 아이들이 빈 손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선물을 꼼꼼하게 안겨준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40~50대의 가슴에 남아 있는 따스한 교회의 이미지를 2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다. 그런 이미지는 흑시 성장한 후 신앙을 떠나는 아이들이 힘들 때 과거를 떠올리며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을 키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외운다는 점. 그들의 존재를 천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인정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다 보

100여명을 섬기는 어린 사역은 김 목사 홀로 맡고 있다. 그래서 매일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그의 별명은 '담임목사 겸 사찰집사'다. 김 목사는 "집사님들이 이해해 주시니 참 기쁘다. 어른들을 위해 쓸 자원을 아이들에게 쓰는 셈이다"며 "그분들에게는 '우리는 굶더라도 아이들만은...' 하는 간절함이 있다"고 말한다.

초창기 5년의 1기 사역을 베이스캠프 격인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했던 김 목사는 지난해 시작된 2기 사역에서는 가정 세우기에 전력하고 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테마예배 갖는 등 리더 포함 모든 교우가 2세 사역에 올인 사역 2기 맞아서는 가정 세우기에 중점

니 교회의 자녀들을 모두 자기 자녀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어른들이 '야라고 부르는 대신 '누구야'라고 이름을 불러 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아이들도 집에 가기 싫어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게 됐다.

유모차를 끌고 교회에 오는 젊은 커플들도 중년들이 아기들을 자기 손주처럼 끼고 보살피며 주니 모처럼 힘을 누리며 행복해 한다. 볼 때마다 과자를 쥐어주는 연세 많은 권사님들도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때문에 모두가 '이게 교회다' 하며 뿌듯함을 느낀다.

"2세에 올인한다는 말이 슬로건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책이나 관심의 초점이 그들에게 맞춰져야 하지요. 우리 교회 리더들은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이 좋아할까' 하는 생각으로 꼭 차 있어요. 특새를 해도 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느끼도록 준비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유별난 자녀 사랑은 목회자의 진용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세들을 위해서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영어대학부, 한국어대학부를 전담하는 각각의 사역자가 있는 반면,

다'는 확신 아래 전 교인들이 동참 중인 이 사역은 가정 세미나, 치유 세미나 등 부모들의 마음 밭을 기경하는 일로부터 시작했다. 세미나 후 부모들은 자녀들이 훗날 돌아볼 때 '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로 기억되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됐다.

교회는 작년부터 민수기 6장 24~26절 같은 축복의 성경말씀을 나눠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매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들이민 뒤 안수기도를 받도록 시켰다.

"믿음이 작은 사람도, 기도 못하는 사람도 가능한 일이었기에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간증이 쏟아졌습니다. 타주의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이 여름방학에 돌아와 수양회와 특새에 참석하고 VBS에서 가르치고는 돌아가기 싫어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자녀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제목들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간절히 빌도록 했다. 자녀들을 위해 구해야 할 것이 단순한 성공이 아님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다.

김 목사는 10년의 역사를 채우고 맞을 3기에서는 주정부 지원을 받지만 커리큘럼 자율



NEXT사랑의교회 담임 김일영 목사.

권이 보장된 '차터스쿨'(대안학교)을 세워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가진 인재들로 키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교회, 가정, 학교가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삼위일체 사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의 비전이 거짓이 아니라면, 목회자와 순장 등 동역자들이 투명하고 순수하게 함께 일할 때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는 "한꺼번에 많이 하자가 아니라 한번 하면 끝까지 가자, 욕심 부리지 말고 적용에 강한 공동체가 되자고 리더들에게 강조한다. 호수가 백조의 우아한 모습 아래에는 끊임없는 발질이 있는 것처럼, 2세 중심의 목회 방향을 이해하고 희생해 주신 리더들이 있었기에 예배당 건축을 비롯한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감격해 했다.

NEXT사랑의교회는 남가주사랑의교회의 분립개척 교회로 탄생했기에 다락방, 새가족반, 제자반, 사역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성인 제자훈련에도 열심이다.

문의: 949-829-0010

김장섭 전문위원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리아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1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진 박사, 이사장: 김광민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

美 전역 낙태아 장기 매매 규탄 시위

존 파이퍼 목사 '하나님의 공의 앞에 멈춰 서야'



존 파이퍼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미국의 반낙태단체들과 크리스천들이 23일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미국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반대 전국 시위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시위는 최근 가족계획연맹 소속 직원들이 낙태아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판매해 온 사실을 폭로하는 영상이 연속적으로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존 파이퍼 목사가 미네소타의 집회에 참석해 기도했다. 그는 "우리는 가족계획연맹을 위해, 그들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낙태를 통해 부모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돕는 대신, 부모들의 건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길 원합니다. 낙태가 위험한 임신에 대한 수용할 만한 해결책이 아니라 접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른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낙태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파이퍼 목사는 또한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길 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아이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낙태 시술을 하는 이들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와 같은 이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족계획연맹은 지난해 정부에게서 약 5억 4,060만 달러(약 6,500억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단체 1년 예산의 45%에 해당된다.

반낙태운동연맹의 에릭 J. 웨이들러 사무국장은 "우리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가족계획연맹이 태아의 장기를 팔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난달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과 기독교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수 차례 언급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가장 빠른 기독교 성장국 '네팔'

연 10.93%...중국·UAE·사우디 등이 뒤이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네팔(연 성장률 10.93%)이다.

월드아웃리치인터내셔널이 최근 글로벌기독교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기독교 성장이 가장 빠른 20개 국가'를 발표했다.

네팔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중국(10.86%)이다. 보고서는 "현재 성장율대로라면 중국은 2030년경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아랍에미리트(9.34%)와 사우디아라비아(8.27%), 카타르(7.81%), 오만(7.62%), 예멘(7.09%), 몽골(5.96%), 캄보디아(5.87%), 바레인(5.49%) 순이다.

20개 국가에 포함된 국가들을 대륙별로 분류해 보면 아시아와 7개국, 중동 7개국, 아프리카 5개국 등이다.

힌두교 중심인 네팔은 1970년대 기독교

교인이 전체 인구 중 0.1%에 불과했지만,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소 측은 "중국과 몽골, 네팔 등은 인구 증가율보다 기독교 인구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특별히 보고서에서는 이슬람 지역의 기독교 성장세가 눈에 띈다. 기독교 인구 성장률 상위 20개국 중 이슬람권 국가는 11개국이나 됐다. 이어 불교(4개국)와 기독교(3개국), 힌두교(1개국) 등의 순이다. 그러나 미국 등 북미·유럽·남미 등은 성장율이 높은 국가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기독교의 흐름이 점차 제3세계로 이동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 하트포드중교연구소와 리더십네트워크가 함께 발표한 '전 세계 대형교회 현황'을 보면, 대형교회들이 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혜리 기자

암 투병 카터 전 대통령

그가 가르치는 주일 성경교실...700여 명 몰려들어

암투병 사실을 공개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가르치는 조지아 주의 마라 나타침례교회 주일 성경교실에 무려 700여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23일 현지인론들이 보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비좁은 장소 탓에 교회에서 1차로 460명에게 설교하고, 인근 고등학교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2차로 설교를 해야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사랑'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면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태복음 5장 구절을 읽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평소처럼 편안하게 미소를 짓는 인상이었으며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과 일일이 사진 촬영에 응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30여년간 매 주일 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으며 평소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 날짜 사실에서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어 암투병 사실을 공개한 카터 전 대통령이 품위있는 전직 대통령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지미카터센터 제공)

면서 그는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 주 플레인스의 에모리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지역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물론 땅콩 재배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카터 전 대통령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또 그는 때보다 솔직하게 '나에게 어떤 일어난다'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WP는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호화로운 기념도서관을 짓거나 연설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벌지 않고 실질적이면서도 시민정신에 기반한 캠페인을 벌여 나갔다"며 "특히 민주주의를 해외에 전파하고 저개발국의 질병을 퇴치하는 데 노력해 생명들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점심예배 오후 2:22 주일·버림중학교 / 토요새벽·17의버몬트 크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이 새롭고, 이민이 정통하며, 이민이 영광을 승화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연제선 담임목사</p> <p>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 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박성도 담임목사</p> <p>LA 선교교회 내 지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나누어, 소망중에 기뻐하라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p> <p>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온교회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p> <p>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에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p> <p>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p> <p>한기형 담임목사</p> <p>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66 T. (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p> <p>주일학교 오전 11:00</p> <p>서건오 담임목사</p> <p>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에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학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활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32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김광삼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6:00 (토)</p> <p>목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일예배(목요일) 오후 7시(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p> <p>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목요일예배(목요일) 오후 7시(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p>
<p>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에: 오후 7:30</p> <p>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p> <p>신현호 담임목사</p> <p>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영어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1 (월서와 월튼 옆) T. (213) 380-0071</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p> <p>금요일에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p> <p>장정삼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T. (310) 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점부 베네딕트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p> <p>요한 선교교회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6:00 (월-토)</p> <p>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p> <p>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민종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곽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3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p> <p>Bryan Kim D.M.D.</p> <p>김범수 치과</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성민**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30
영아회중예배 - 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0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청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묵** 담임목사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주일예배 오전 11:45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김준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한이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 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중, 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예배 오전 10:00 **김바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오후 2: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예배 오후 8:00(장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정영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www.dreamumc.com
EM 1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역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벤츄라카운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 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익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최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수요영성예배 - 저녁 7:45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2631 E. Imperial Hwy., #F134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최호년** 담임목사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본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10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보이스카우트의 회원이 급감하고 있다.

보이스카우트 회원수 급감

동성애자 수용 후 미국 보이스카우트 회원수 현저히 감소

2014년 기준, 보이스카우트에 참가한 남자 청소년들은 24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0만 명이 감소했다. 전체 회원의 7.4%가 감소한 것이다. 2013년 전체 회원의 6%가 감소한 데 이어 연달아 회원이 줄었다.

이유는 2013년 보이스카우트가 동성애자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보이스카우트는 그동안 지역 교회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발전해왔다. 지역교회 남자 청소년들이 대거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했고 보이스카우트는 지역교회에서 정기 모임을 갖는 등 보이스카우트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하지만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보는 지역교회들은 보이스카우트가 동성애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정책을 바꾸자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보이스카우트에서 탈퇴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보이스카우트가 지난 7월 27일 동성애자 어른들도 보이스카우트 리더로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보이스카우트에 대한 교회의 지지는 더 줄어들고 회원은 더 줄어든 전망이다.

남침례교, 감리교, 몰몬교 등이 대표적으로 이 단체들은 기존에 가져왔던 보이스카우트와의 관계를 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몰몬교. 몰몬교는 보이스카우트를 교회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삼고 있어 몰몬교도가 된 남자 청소년은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보이스카우트 회원의 20%가 몰몬교 출신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몰몬교도 과반수는 동성애자 어른까지 리더로 받아들이는 보이스카우트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제공: 케이이메리칸포스트]

올랜드국제공항 무슬림 기도실

세금으로 조성...프랭클린 그래함 '이슬람에게만 우호적'

올랜드 국제공항에 무슬림 기도실이 25만 달러의 세금이 투입돼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이 기도실이 일종의 모스크(이슬람 사원)라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몰몬교인 등 다른 종교 집단을 위한 기도실을 만든다며 이 돈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큰 반발이 일겠냐며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함 목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왜 무슬림들에게만 우호적인가?"고 반문했다.

그래함 목사는 앞서 미국 정부가 무슬림들의 미국 이민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무슬림 관련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공항에는 지난 1983년부터 기도실이 운영됐으며, 모든 종교인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언론 '뉴스 13(News 13)'은 이달 초 올랜드국제공항에 새로

운 기도실이 만들어져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된다고 보도했다.

공항의 '터미널B'에 만들어지는 이 기도실은 에미레이츠 항공이 올랜드-두바이 직항노선을 개설한다고 발표한 이후 만드는 것이 결정됐다.

기도실 조성 발표 시점과 함께 이 기도실이 중동에서 오는 많은 무슬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슬림 기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슬람 사회 플로리다지부의 이맘 무함마드 무스리 대표도 이 기도실과 관련해 "무슬림 기도실은 여행자들에게 장거리 비행 후 안식을 취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롤린 페널 공항 관계자는 "이 기도실이 종교와 관련없이 국제 여행객들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슬림들이 관행대로 기도할 것이라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침례회 초대 총회장 설립 교회

동성애 사역자 허용...교인들 논의 후 결정

미국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 초대 총회장에 의해 설립된 교회가 새로운 차별금지 정책을 채택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동성결혼 커플을 교회의 회중으로 허용할 뿐 아니라, 사역자로도 임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교회는 지난 1831년 초대 SBC 총회장인 윌리엄 블레인 존슨에 의해 설립됐으며, 1999년 SBC에서 탈퇴했다. 현재는 협동침례교회(Cooperative Baptist Fellowship) 소속이다.

18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의 퍼스트배티스트처치의 담임인 짐 맨트는, 최근 지역 언론 그린빌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투표를 통해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투표는 이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가 성소수자(LGBT)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6개월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실시됐다.

맨트 목사는 "우리가 내린 결정은 차별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하지 않겠다. 누구라도 우리의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며, 그들이 믿는 바

에 따라 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맨트 목사는 교인들이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과 관련한 교회의 정책에 대해 수 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토론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후 200명의 교인들이 8개 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지난 5월 성적 정체성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교회는 협동침례교회 소속인데, 이 교단에는 현재 2,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가입돼 있다. 이 교회들은 지난 1990년대 초 SBC에서 탈퇴한 후 이 교단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교단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아닌, 전통적인 결혼의 정의를 지지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이나 동성결혼자들이 교회 내에서 공식적인 직분을 갖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교회의 결정을 놓고 교단 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이 교회의 결정과 관련, "교회가 죄를 용납할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그래함 목사는 "실망스럽고 낙심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라면서 이사가서 5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했다. 이혜리 기자

극단 이슬람에 의해 멸종 위기에 놓인 '중동 5대 교파'

중동에서 IS를 비롯한 근본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지배와 핍박이 계속될 경우, 사도 시대부터 존재해 온 역사적 교회들이 멸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구호단체인 '에드투더처치인니드'(Aid to the Church in Need) 이사장인 조지 J. 마틴(George J. Martin)은 최근 '중동 지역의 박해받는 기독교인'(Christian Persecutions in the Middle East)이라는 책을 냈다. 마틴은 이 책을 통해 중동 내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증가하고 있는 핍박 뿐 아니라, 현지 교회들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이 가운데 5개의 교파를 소개했다.

1. 시리아정교회

시리아정교회는 에페수스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에서 결의된 교리를 거부한 오리엔트정교회의 교파다.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현재는 국외에도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분리를 주장한 시리아정교회 교인들은, 그들만의 사제를 세우고 기존의 교회에서 갈라져 나왔다.

시리아정교회는 그 기원이 신약의 안디옥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며, 바울을 첫 번째 사도로 여기고 있다. 오늘날 시리아 정교회 교인 수는 약 500만 명이다.

2. 콥트교회

콥트교회는 그 기원이 A.D. 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도 마가가 이집트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신성만을 지니고 있다는 단성론이 이집트에 처음 뿌리를 내렸으며,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디오스코루스 주교가 이를 받아 들였다. 그의 가르침은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이로 인해 많은 이집트 신자들은 가톨릭과 다른 정교회 소속 교회들에서 분리돼 나왔다.

콥트교회는 오늘날도 콥트 총대주교의 지도 아래 계속 운영되고 있다. A.D. 640년 아랍의 무슬림들이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 그 세력이 많이 약화돼 왔으며, 현재 이 지역에서 박해받는 소수가 되었다.

3. 예루살렘 총대주교관구

예루살렘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의 출발지로서, 사도 야고보가 관할했다. 451년 칼케돈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공의회에서, 5대 총대주교 관구(Pentarchy) 중 안티오키아에 이어 다섯 번째 서열을 지닌 총대주교구로 설정됐다. 현재 예루살렘의 총대주교는 이리네오스이며, 약 60개 교구를 관할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A.D. 637년 아랍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기독교의 허브로서 활발하게 성장했다. 이후 많은 수도원과 교회들이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유럽의 십자군 원정대가 1099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라틴 총대주교를 임명

했다. 그러나 이집트와 시리아의 살라딘 술탄이 1187년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했다. 이후 1516년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과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이슬람 제국을 세운다. 이때 그리스 총대주교가 선출된다.

오늘날 정교회 교회들이 예루살렘 내 많은 성지를 관할하고 있다. 2005년부터 테오필로스 3세 총대주교가 이끌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3만 명의 교인들이 있다.

4. 멜키트그리스정교회

멜키트그리스정교회는 원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시리아 출신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A.D. 451년 칼케돈 공의회 교리를 따랐다. 이 교회의 기원은 신약의 안디옥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을 의미하는 시리아어에서 파생된 멜키트라는 단어는, 칼케돈 의회의 기독교론을 받아들인 중동의 기독교인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됐다.

1054년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분리 후, 안디옥교회의 많은 정교회 신자들은 로마에 다시 공동체를 설립하고자 했고, 1726년 교회들은 재통합의회(Council of Reunion)에서 재결합했다.

멜키트라는 이름은 로마에서 재결합한 안디옥정교회 교인들을 위해 보존되었다. 멜키트교회는 동료 사제들에 의해 선출된 총대주교가 이끌며, 그 선출은 반드시 바티칸과 다마스쿠스의 지도자에 의해 승인돼야 한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을 위주로 전 세계에 약 120만 명의 멜키트 교인들이 있다.

5. 칼데아가톨릭교회

칼데아가톨릭교회는 네스토리안 기독교인들의 후예들에서 이어졌다. 이들은 칼케돈 공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네스토리우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로서, 현재 이라크에 거주하고 있다.

이 교회는 14세기 몽골의 지도자 티무르에 의해 인도를 제외한 이라크 동쪽의 모든 네스토리우스교회가 파괴되기 전까지 크게 번성했으며, 중국·아시아 몽골 평원, 인도 말라바르 해안까지 확장됐다.

네스토리우스교회는 1551년 총대주교로 선출된 온 술라카가 로마로 가서 가톨릭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처음으로 로마교회와 연합했다. 이때부터 가톨릭교도가 된 네스토리우스교도들을, '칼데아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이후 1672, 1771, 1778년에 로마교회와 연합했으며, 최근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바빌로니아 총대주교들' 계보는 1830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총대주교관사는 처음에는 라반 호르미즈드 수도원에, 그 다음에는 모술에, 마지막으로 바그다드에 정착했다. 바그다드 총대주교구 외에도 4개의 대주교구와 7개의 교구가 있다. 약 50만 명의 교인들은 대부분 아시아인들로 구성돼 있다.

손현정 기자

IS, 1600년 된 시리아 수도원 파괴 세계가 IS 문화 유산 파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에서 1,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독교 수도원을 파괴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또한 IS가 기독교 순교 성인의 묘지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IS는 이달 초 시리아 서부 흡스 지구의 알카리아타인 마을을 점거하고 230여 명의 기독교인을 납치했다. 이들 교인들 중 일부는 마을 내 가톨릭 수도원이 마르 엘리안(Mar Elian) 수도원에서 끌려온 교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IS는 지난 주 SNS상에 불도저를 대동해 이 수도원을 파괴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마르 엘리안 수도원은 432년에 지어진 유서 깊은 가톨릭 성당으로, 엘리안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로마 관리였던 아버지에게 죽임당한 터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크 무라드 신부와 성당 봉사자가 지난 5월 납치된 곳이기도 하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한편 IS가 수도원을 파괴하면서 엘리안 성인의 석관에서 유해를 꺼내 훼손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아직까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IS가

그동안 기독교 유적을 파괴하면서 성인들의 무덤을 함께 훼손해 온 행태를 미루어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성직자와 알카리아타인 마을 주민은 AP와의 인터뷰에서 IS가 수도원 내부의 교회까지 파괴했다고 밝혔다.

호주 멜버른대학교의 이라크·시리아 기독교 전문가인 니콜라스 알젤루 교수는 "이 수도원은 세계 기독교 커뮤니티를 통틀어 매우 중요한 성지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다.

IS는 점거하는 지역마다 오랜 역사의 기독교 문화 유산을 파괴하는 만행으로 규탄을 받아 왔다. 올해 초에도 IS는 이라크 니느웨 지역 카라슈 마을에서 마르 베남(Mar Behnam) 수도원을 파괴하고 순교 성인들의 묘지를 훼손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모술에서 세인트 조지 칼데아교회 수도원을 부수고 선지자 요나의 무덤으로 알려진 무덤을 파괴했다. 알젤루 교수는 역사를 통틀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항상 존재해 왔지만 현재 IS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박해가 가장 심각한 수준의 박해라고 지적했다.

손현정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들파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선교회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더울남) 7:00am
화요종보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평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양대학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벨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l)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선교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박임룡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오전 5:30
(토)오전 6:00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RETH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새벽 행사/기도회 새벽 6:00

베렐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일 : 7:20 PM(성경 66권특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쁨을 사모하고 온전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을 찬양함(22: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복 박사 회장 주혁목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이등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 (1-6) 오전 11:00
토요 연합 새벽기도회 오전 6: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선교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앨버틴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714)309-7551
Pastoryckim@yahoo.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들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 5:30 AM (화-금)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 9: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영민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714) 446-6200 / F.(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주혁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령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민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 월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니움.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다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유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인과도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외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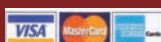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한기총 '남북관계 주도권 획득한 쾌거'

북의 사실상 도발 시인과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 높이 평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는 대표단 ©통일부 제공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25일 극적 타결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이번 회담은 남북이 분명한 대화 의지를 갖고 향후 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성까지 논의한 것으로, 북한의 상당한 변화와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노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남북 분단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전개됐지만, 확실한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서로의 의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남북 당국자들이 공존과 상생의 길을 택했기 때

문"이라며 "이는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고, 이를 계기로 남북이 동반자적 자세를 견지하고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도 확인되었듯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인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북한이 도발을 시인한 것으로, 사과와 다름없는 유감을 이끌어 낸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킨 쾌거로,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획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기총은 "저희는 앞으로 있을

남북 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및 민간 교류에 대해 큰 기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통일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가 통일 기금 마련에 모두가 동참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기총은 교회 예산의 1%를 통일 기금으로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통일나눔펀드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며 "향후 북한에 학교와 병원, 교회 등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될 통일 기금을 마련하여, 남북간 경제력 차이를 완충하고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전도는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부흥한국 제25차 전도 컨퍼런스, 25일 막 올라



부흥한국 제25차 전도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부흥한국(대표 박성준 목사) 제25차 전도 컨퍼런스가 25일 서울 송파구 하늘비전교회(담임 오영택 목사)에서 개최된 수도권1지역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날 컨퍼런스는 박성준·오영택 목사의 개회 및 환영사 후 김석년 목사(서초교회), 정진호 목사(세현교회),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 정훈 목사(여천교회)가 각각 강의를 담당했다.

최종천 목사는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는 전도자라는 발제를 통해, 전도를 위해선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인내로 인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오늘도 집 나간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여 년간 체험해본 결과로 성도의 숫자만 채운다는 말은 허구"라며 "성도는 아무리 인위적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전도의 실제적

인 모습도 솔직하게 전했다.

정진호 목사는 "전도 핵심 네가지를 마스터 합시다라는 발제에서 '성경 전 반에는 4가지의 영적 핵심이 흐르고 있으며,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후 축복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구원의 확신과 뜨거움이 있기를 바라며, 십자가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성령충만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정훈 목사는 "영혼사랑과 결실전도, 나를 제물로 바치라!"는 강의를 통해, 전도는 사명인 점과 전도대상자들이 예수님보다 나를 먼저 보기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석년 목사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나는 행복한 파워 전도자라는 발제에서, 먼저 전도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이며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일이라고 했다. 이동윤 기자

한국 순교자의 소리 '풍선 사역 제지 수용 못해'

북한 정부가 공인한 성경책만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맨 왼쪽)가 사무실 앞을 지키고 있는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풍선 사역에 대한 의도 등을 설명하고 있다.

풍선에 매던 5만여 권의 성경책을 넣어 북한에 보내온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Voice of the Martyrs Korea)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풍선 사역을 제지받자 "풍선 사역 금지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평화적으

고 비폭력적 방법으로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24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풍선사역을 포함한 기독교 사역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폭넓게 사용하여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계속해 왔다"며 "다른 풍선을 날리는 단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풍선을 보내는 일로 남한과 북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해진다고 믿지 않는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풍선을 보낼 때 경찰에는 알렸지만 언론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책 원문은 북한 정부가 직접 출간하고 공인된 성경이며 편집을 위해 약간 수정했다"며 "북한 정부가 자신들의 인권 보고에서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성경 본문이며, 모든 북한 시민이 읽을 권리가 있고 북한 법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한 성경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국회 동성애 폐해 대책 마련해야

예장합동 총회, 10만명 서명 국회 제출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반대와 국가인권위법 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실시, 10만명 서명을 받아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예장합동 총회사회부 부장 정순행 장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동성애 입법)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난 6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동성애퀴어축제가 개최된 일을 보더라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동성애를 미화조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법 제 2 조 3 항에 차별받지 않아야 할 대상 중 '성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 모르게 삽입되면서 국가인권위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장로는 "심지어 최근에는 대전

시와 과천시에서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동성 결혼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가 교묘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총회 사회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고자 전국 교회서명운동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고, 전국 교회 10만명의 성도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계"라고 지적하고, "동성애가 합법이 되면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지고 전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 했다. 더불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면서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고 건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가을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9월 18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모든 / 통 / 증 / 고 / 민 / 이젠 끝~!

어메이징 힐 AMAZING HEAL



신 제품

- / 가벼운 통증부터 /
- / 만성 통증까지 /
- / 혈액순환 개선 /
- / 천연한방성분 /

- 뼈마디 통증
- 오십견
- 신경통
- 근육통
- 관절통
- 교통사고 후유증
- 스포츠로 인한 통증
- 골병(骨病)

비방의 유래

조상 대대로 가문의 전통을 이어 내려온 특수 비방으로 한약 재료만을 사용하여 제조 하였고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극심한 통증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며 한번 사용해 본 수많은 환자들의 치유 사례들을 보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많은 분들이 사용하여 본 결과 그 진가를 확인하고 보니 이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런 비방을 널리 알려 더 많은 분들이 통증 질환으로부터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제품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징

어메이징 힐(Amazing Heal)은 흔히 말하는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제품명에서 말해 주듯이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모든 성분들이 순수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체에 부작용이나 해가 없으며 몸 속에 뭉쳐 있는 어혈들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치료의 근본을 제공해 주며 이후에 발생하는 재발성 후유증을 없게 해줍니다. 일회용 마약성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며 각종 통증을 근원적으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가정마다 상비약으로 비치해 놓고 평상시 당할 수 있는 다쳐서 생길 수 있는 가벼운 통증 관련 질병에서부터 치료 시기를 놓쳐 고질화 된 만성 통증까지를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는 특수 효능이 이 제품에 담겨 있습니다.

유효 성분들

Angelica Root, Siler Root, Cnidium Root, Gastrodia Elata, Notopterygium Root, Platycodon Root

적용 병증과 치료 범위

어메이징 힐(Amazing Heal)은 치료제가 아니면서 한방 보조제로서 아래와 같은 병증에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후유증 및 통증
2. 각종 스포츠로 인한 관절 부위 부상 및 염좌 (인대 손상 염증)
3. 테니스 엘보
4. 일상의 타박상과 삐고 어혈이 뭉쳐 있는 곳의 해소
5. 퇴행성이 아닌 류마티스 관절염
6. 족저근막염(발 뒤꿈치 염증)
7. 침대에서 떨어져 입은 노약자 분들의 각종 부상
8.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손, 손목, 어깨, 팔다리, 무릎 관절 통증
9. 부상 및 과다 사용으로 인한 관절염과 통증
10. 폭력으로 인한 온 몸의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
11. 각종 만성적인 부상으로 인한 고질적인 후유증 치료
12. 골병(骨病)이 들었다고 생각되는 통증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 HEALTH, INC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무함마드와 이슬람에 영향을 끼친 이단들

1. 무함마드의 생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아라비아반도의 메카에서 쿠라이쉬(Quraish) 부족의 하심(Hasim) 가문으로 태어났다. 당시에 쿠라이쉬 부족은 메카의 카바(Kaaba)신전을 관리했다. 그의 아버지 압둘라(Abdullah)는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 유복자로 태어난 무함마드는 많은 사막의 공기 속에서 남자답게 성장하라는 쿠라이쉬 부족의 전통에 따라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사막에서 생활하는 베두인 여인 할리마(Halima)의 손에서 자랐다.

그리고 6세의 나이에 집으로 돌아왔다. 무함마드의 어머니 아미나(Aminah)는 잘 자란 무함마드를 친정 식구들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그녀의 고향인 메디나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열병에 걸려서, 아브와(al-Abwa)에서 죽었다. 그 후 무함마드는 조부(Abu al-Mutalib)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8세 때 조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조부는 죽기 전에 무함마드를 자신의 아들이자 무함마드의 삼촌인 아부 탈립(Abu Talib)에게 부탁했다.

무함마드가 12세가 되었을 때, 삼촌 아부 탈립은 그를 데리고 시리아로 무역을 떠났다. 그러나 삼촌의 무역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계속되지 못했다. 무함마드는 가난한 삼촌의 집안 일을 돌보면서 목동으로서 살았다. 삼촌 아부 탈립은 가난한 데다가 딸린 식구가 많았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목동보다 수익성이 높은 일을 찾아야 했다. 그러다가 25세가 되었을 때, 과부가 된 쿠와일리의 딸 카디자(Kadija)라는 여인이 쿠라이쉬 부족 가운데 집안의 사업을 위한 총무를 찾는다는 것이다. 무함마드 시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아라비아반도는 사막이었다. 이는 생존을 위하여 다른 지역과 무역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메카의 상인들은 낙타들로 이루어진 대상을 파견하곤 했는데, 당시 가장 큰 낙타 대상들 가운데 하나는, 메카에서 가장 부유한 여인 카디자였다. 이슬람 역사에 따르면, 그녀는 무함마드의 충직하고 성실한 성품을 보자 그를 시리아로 가는 대상의 총무로 고용했다고 한다. 무함마드는 신품 간 물건을 투자한 돈의 두 배 정도로 팔고 돌아왔다. 이에 카디자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당시 카디자는 마흔 살이 넘었고 네 번 이혼했으며 자녀도 있었지만, 무함마드에게 청혼했다. 사람들은 카디자가 무함마드에게 청혼한 이야기에 의심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이슬람 역사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부유한 카디자와 결혼한 무함마드는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됐다. 무함마드의 결혼생활은 무난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 무함마드는 카디자와의 사이에 두 아들 압둘(Abdul)·카심(Kashim)과 네 딸 자이남(Zainab)·루카이야(Rukaiyya)·움무칼숨(Um Kulthum)·파티마(Fatima)를 낳았다. 그런데 두 명의 아들이 어렸을 때 죽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아라비아의 거친 사막을 배경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건강한 남자 아이를 선호했다. 그러므로 무함마드에게 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또 두 명의 아들이 모두 어린 시절에 죽었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무함마드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무함마드는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진리를 찾고 싶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에 무함마드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 비잔틴 기독교 제국에서 쫓겨난 이



유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그가 이전에도 종종 그런 적이 있어서, 카디자는 무함마드를 안정시켰다. 이슬람에 따르면,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됐다고 한다. 가끔씩 무함마드는 “취해서 땅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며 나타 새끼처럼 신음했다”고 한다. 훗날 무함마드의 부인이 된 아이샤(Aisha)는 이렇게 서술했다. “알라의 선지자는 습관적으로 발명해서 추운 날에도 땀이 구슬처럼 얼굴에 흘러 내렸다” 이 구절은 무함마드가 오랫동안 간질병이 앓지 않았나 의심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는 모

무함마드의 부인 가운데 두 명은 유대인이었고, 한 명은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무함마드의 부인 가운데 여덟 번째인 마리암(Maryam)은 이집트 콥트 교회의 대주교가 선물로 보낸 두 명의 노예 가운데 한 명이었다. 무함마드는 그녀를 통하여 이브라힘(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을 얻었으나, 그 역시 병으로 죽었다. 가장 어렸던 부인이자 이슬람의 어머니로 불리는 아이샤의 증언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여자와 향수, 그리고 음식, 이 세 가지를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무함마드는 A.D. 632년 6월 8일 62세의 나이로 메디나에서 고열과 폐렴으로 죽었다.

2. 이슬람 형성에 영향 준 이단들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에 대하여 처음 연구하였던 사람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살았던 요하네스(Johannes)였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저술인 『지식의 근원』

안 수도사를 만나기 위하여 보스라를 방문했으나 못 만났다. 이는 무함마드가 네스토리안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다. 또한 무함마드는 기독교 세력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비시니아(Abyssinia)는 단성론자(예수 그리스도가 단성, 즉 신성만을 갖는다고 함)들이었다. 갓산 왕조도 단성론자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무함마드의 부인 가운데 마리암은 이집트의 콥트교인이었다.

무함마드에게 영향을 끼쳤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단은 에비온(Ebionites)파였다.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하는 것은, 에비온파의 특징이다. 에비온파는 그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었다. 에비온파가 초기 교회사에서 이단이 된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혼합된 종교였기 때문이다. 무함마드 당시에 메카에는 약 200-300명의 에비온파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 무함마드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카디자(Khadija)는 에비온파 신자였으며, 무함마드에게 종교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와라카 빈 나우팔(waraqqa bin naufal)은 카디자의 사촌으로서 에비온파의 사제였으며 메카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다.

이슬람 교리의 구조는 기독교와 비슷하면서도 정통 기독교와는 다르다. 오랫동안 이슬람을 연구했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장 칼뱅(J. Calvin, 1509-1564)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주해하면서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배교자요, 이단자라고 했다. 마틴 루터(1843-1546)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이 얼마나 해로운 종교인지 알고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도록, 1542년 쾰른의 라틴어 번역에 찬성했다. 루터는 기독교의 반이슬람 논쟁자의 반열에 서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16억이 무슬림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의 약 23.2%다. 한국에서도 1990년 이후에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만 명을 넘었다. 2011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으로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도 71,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무슬림들 중 80%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또 다른 무함마드들이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이슬람의 증거를 간과하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교회도 이제부터는 늘어가 는 이슬람 인구에 대해 선교적 관심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참된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일생동안 정정상적인 기독교인을 만나지 못한 무함마드 비잔틴 기독교 제국에서 쫓겨난 이단들만 주변에 가득해 꾸란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슬람은 이단

단들만이 주변에 가득했다. 그는 일생 동안 정상적인 기독교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는 종종 메카의 북쪽으로 2마일 떨어진 히라(Hira)산 동굴에 은거하였다. 아랍인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금식을 하였다. 무함마드가 40세가 되었을 때 금식 기간에, 히라산 동굴에서 하인이 날아다 주는 최소한의 양식으로 생활을 했다. 그가 잠이 들었을 때였다. 한 영(靈)이 종이를 들고 나타나 그에게 읽으라고 말했다. 무함마드는 깜짝 놀라며 “무엇을 읽으란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이 세 번을 반복하더니 그 영(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그분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 읽어라! 그대의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으로서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노라”(꾸란 96:1-5) 무함마드는 그 구절을 따라 읽고 암송했다. 그는 자신에게 나타난 것이 귀신(진, Jinn)이라고 여겨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이때 무함마드는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알라의 사도로 임명한다는 음성을 듣고 멈추었다고 한다. 그는 떨리는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와 카디자에게 담요로 자기를 덮여 달라고 했다.

든 계시를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인식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함마드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했다.

심지어 꾸란에도 “그 때 그들이 말하더라 그대에게 꾸란이 계시되었다니 그대가 미친 것 아니뇨?”(꾸란 15:6), “제정신을 벗어난 시인을 위하여 우리의 신을 포기해야 하느냐?”(꾸란 37:36)는 구절도 있다. 카디자는 남편이 잠든 것을 보고 자신의 외사촌이었던 와라카 빈 나우팔(Waraqqa bin Naufal)을 찾아가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우팔은 메카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다. 그는 평소에 무함마드의 멘토 역할을 했는데, 그가 무함마드에게 나타난 것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천사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더불어 ‘무함마드는 이 민족을 위한 예언자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카디자는 무함마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 주었다. 곧 카디자는 무함마드의 최초 추종자가 되었다. 이슬람은 이렇게 시작됐다.

카디자는 결혼 후 25년 만에 죽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함마드에게는 카디자 외에 다른 부인이 없었다. 카디자가 죽은 후, 무함마드는 6세의 아이샤(Aisha)와 약혼을 하였고, 그녀가 만 8세가 되었을 때 결혼했다. 이때부터 무함마드에게는 많은 부인과 여종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제2부 이단에 관하여’에서 이슬람을 이단으로 간주했다. 이유는 ‘무함마드가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 수도사에게서 정보를 받아서 이슬람이 시작되었으며, 꾸란에서는 예수님을 비록 알라의 말씀이자 영으로 언급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삼위일체에 대한 꾸란의 견해는, 당시에 아라비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컸던 컬리리디아니즘(Collyridianism)이란 종파에 영향을 받았다. 이 종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숭배와 경배를 마리아에게 드리는 등, 마리아를 여신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컬리리디아니즘이 5세기에 성행했던 지역이 공교롭게도 데메테르(Demeter)와 레아(Rhea) 같은, 그리스 여신들을 숭배하던 지역과 일치한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꾸란의 묘사는 당시 아라비아 지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본질상 도케티즘(Docetism)에 속한 많은 영지주의적 그리스도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슬람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12살 때 시리아의 보스라를 방문했을 때 네스토리안(경교) 수도사 부하리(Buhari)를 만났다. 그 수도사는 처음으로 무함마드가 선지자임을 무함마드의 삼촌에게 알렸다. 그 후에 25세 때 카디자의 총무로 대상을 인도하던 무함마드는, 다시 네스토리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단테처럼 여행하기

전규태 | 열림원 | 220쪽

저자는 중년 말미 체장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주치의는 좋아하는 여행을 하며 '객사'할 것을 권했다. 스트레스로 얻은 병이었기에 "모든 것을 놓고, 그동안의 인연과 과감히 결별하고 떠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화구 하나 들쳐 메고 오른 여행길, 모든 것을 잊고 그림을 그리며 세계 각지를 떠돌다 보니 3개월은 3년이 됐고, 어느덧 10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살아 있다.



엄마 마음 태교

이유민 · 강은정 | 길벗 | 2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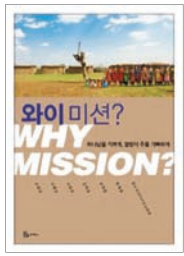
넘쳐나는 태교 방법에 의구심을 갖게 된 전업 엄마들, 태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직장인들의 고민을 담았다. 임신 시기별로 총 4개의 장으로 나누어 동서양의 아름다운 시와 산문들을 보면서 엄마와 아이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낭독과 필사를 통해 바쁜 예비 엄마·아빠가 짧은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할 수 있다. 시기별 임신 정보와 태교 정보 등도 담겨 있다.



와이미션(Why Mission?)

2000선교본부 | 두란노 | 2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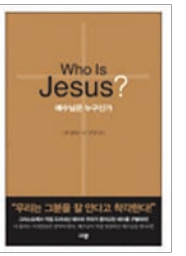
교회 안에는 단지 두 부류의 성도만 존재한다.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와 거부하는 성도다. 우리는 흔히 '선교'하면 '문명이 없는 지역에 나가 내 모든 삶을 다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삶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와이 미션?>의 저자는 말한다.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선교사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렉 길버트 | 규장 | 208쪽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1세기 유대인 목수 집안에 태어난 한 남자를 생각한다. 3년 반 동안 일반 사람들에게 영성을 가르쳤고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성경을 읽고 설명했다. 범상한 일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그는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 처형 당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2천 년 전에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도 그분을 말할까?



REVIEW

'성공' 유혹인가, 축복인가

형통하고 번영을 누릴 때도 내 믿음은 주님 앞에서 한결같을 수 있을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가장 복된 축복으로 돌리는 지혜의 책!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도 돌리지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
 "열심히 헌금하고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
 잠깐, 부와 성공이 축복이라면 왜 넘어서는 걸까? 축복은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성공하지 못하거나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라 오해하고 움추러드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생겨났다. 기왕이면 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며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고 그것이 축복받는 삶이라 여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와 성공을 이룬 후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 삼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다. 왜 하나님께서 선으로 베푸신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부와 성공은 정말 축복이긴 할까? 어쩌면 더욱 엄중한 신앙의 시험대는 아닐까?
 성공의 본질을 알고, 영혼의 본성을 회복하라!
 부와 성공으로 하나님을 만족시



성공-유혹인가, 축복인가 윌리엄 베이츠 생명의말씀사 | 192쪽

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모순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

는 부와 성공의 속성 때문이 아니다. 인간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 때문이다. 사실 부와 성공 그 자체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부와 성공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치명상을 입히는 무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 혹은 궁핍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낮은 곳과 높은 곳 세상 어디에나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무엇인지, 영혼의 본성을 회복하고 부르심의 본질을 찾으며 성공,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믿음

의 싸움이 필요하다!
 부와 성공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평생 경계하며 살았던 윌리엄 베이츠는 사탄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든지 8가지 전략을 설명한다. 또한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와 성공을 남용할 때 어떤 무서운 결말이 닥치는지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이 모든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와 성공 앞에서 어떻게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지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교정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실천들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를 소유하길 바란다.

제23차 9월 7일 하루 신약통독

이번 노동절(Labor day)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Labor day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9월 7일(월) Labor day 오전 8:00

장소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el:(909)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강사진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909)983-0994
904 E D St, Ontario, CA 91764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전화문의 환영 Tel:(909)268-4279

“영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는 종교가 아닌 생명이다

“여호와여! 성 리는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제 입술의 구원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이셨나이다. 제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성 리는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시나이다(시21:1-7).

이 시편은 다윗 왕의 노래인데 ‘왕’의 자리에 저자의 이름인 ‘성 리’를 넣고 저자가 새벽기도 시간마다 주님께 드리는 행복한 그 만의 노래이다.

이 한 편의 주옥같은 다윗 왕의 노래는 저자 성 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천국으로 돌아갈 미래의 모습까지 아름다운 노랫말이 되어 오늘도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로 하여금 간접 경험케 한다.

초로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감사함을 억누를 수 없는 저자는 그렇게 이 한 편의 시를 읊조리며 책의 서문을 열고 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 8월 문교부 유학생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고 U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M.L.S)를 거쳐, 탈봇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후, 바이올라대학교의 국제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친 기독교 교육의 가교역할을 20년 이상 해왔다. 오늘날 바이올라대학교가 그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된 배경에는 가히 저자의 헌신과 섬김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저자 성 리를 향한 이땅에서의 목적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의 하나님
성리
CLC | 378쪽

저자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급급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일구어간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닌 이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며, 자신은 오직 순종의 메를 놓지 않고 달려가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같은 도 구이었을 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어떤 일이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로를 내려 주시듯, 길을 여시고, 사람을 보내 주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 가셨음을 책 전반에 걸쳐 잔잔하게 풀어나가고 있음을 통해 여실히 나타난다.

저자는 바이올라대학교 세계 각 지역의 교회 및 학교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가교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올라대학교의 클라이드 쿡 총장을 비롯한 저명 인사들의 설교 및 강의 통역으로도 바쁘게 뛰었다. 특별히 쿡 총장은 자신의 거의 모든 설교나 강의통역을 꼭 저자가 맡게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이 직접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도 끊임없이 펼쳐 나갔다. 특별히 러시아의 모스크바신학교에서는 2011년 문을 닫기 전까지 20번씩이나 강의를 인도하기도 했다.

또한, 저자는 러시아, 중국, 대만, 남미, 아프리카 등의 여러 신학교와 교회, 선교현장에서 설교와 강의로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웠다.

이 책은 총 4부로 엮여져 있다. 제 1부는 태어나고 자라서 미국으로 건너오기까지의 어린 청년 시절을 그

리고 있다. 저자는 결핵환자였던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태어났다. 그 여파로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했던 저자는 결국 중학교 1학년 시절, 본인도 폐결핵에 걸리고 만다. 그리고 자유당시절, 청렴결백해 대쪽같은 성품으로 대검 검사에서 제주도 검사장으로 발령받은 아버지를 따라 요양차 제주도로 내려간다. 후에 건강을 회복한 저자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이화여고와 연세대학교를 거쳐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이때부터 이미 저자는 죽을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담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달았는지 모른다.

제 2부는 저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많은 일을 해냈는지를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현재 저자가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은혜한인교회를 개척한 김광신 목사는 저자의 평생 믿음의 동역자나 다름없다.

제 3부는 선교지 강의를 위해 세계를 누비게 하시는 예정된 하나님의 뜻, 대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딸 미나의 결혼, 성령의 기름부음, 물질과 남편, 선교지 방문시 당해야 할 여러가지 시험을 어떻게 기도로 통과했으며, 그 시험을 통과하



성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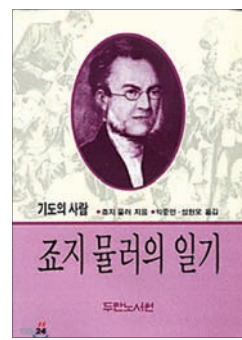
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을 ‘수지맞다’로 표현할 만큼 얼마나 과분한 것이었나를 독자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해준다. 또한,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도전받게 한다.

제 4부는 남편 구원을 위해 평생 쌓아온 기도와 먼저 천국으로 돌아간 남편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은혜, 아무리 유명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한낱 종교인일뿐 그 안에는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깨달음을 던져 주고,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상급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저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한 권의 ‘인생 일기장’의 꽃말이 되었다.

이영인 기자

“5만 번의 기도응답”

조지 물러, 오직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다



조지 물러의 일기
조지 물러
두란노 | 212쪽

조지 물러(George Muller, 1805-1898년)는 1805년 9월 27일 프로이센 왕국 할버슈타트라는 도시에서 가까운 크로펜슈타트에서 태어났다.

물러는 자신의 성장기 당시 부끄러운 모습에 대하여 자서전에서 고백했다. “나는 열 살도 채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위탁된 공금을 자주 훔쳐서 숨겨곤 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이따금 벌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물러는 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영국 브리스톨에 보육원을 세웠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로 했다. 1836년 4월 최초의 보육원이 문을 열었고, 30명의 소녀를 받아들였다. 1870년까지 물러는 학교가 있는 다섯 개의 큰 보육원에서 2천여 명을 돌봤다. 그는 오직 기도로 그 운영비를 마련했다.

물러는 성경을 200번 통독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 100번은 무릎 꿇고 보았다고 한다. 그는 말년에 고아원 운영을 제임스 라이트에게 맡기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과 북미, 호주, 아시아 각국을 여행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했다.

1898년 3월 10일 이른 아침, 조지 물러는 평온히 잠든 채 발견됐다. 전날까지 일상 업무에 분주했고 평상시와 같이 기도회에 참석했던 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짧은 시간에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조지 물러의 일기에는 보육원의 형편이 잘 나타나 있다.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빛지지 않고 97명의 보육원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줄 수 있었다(1838년 9월 17일).”

어려움이 계속돼도 물러는 오직 기도에 의지하며 극복해 나갔다. 물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서, 평생 수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는 이처럼 특별한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이나 받았다. 하루 평균 두 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은 셈이다. 물러는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과시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물러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기도를 드렸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 아우회에게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 폭우로 취소되자 고아들에게 보내온 것이었다. 물러는 이처럼 고아원을 운영한 60여 년 동안 순간순간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체험했다.

물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전체적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성경적인 기도와 기도생활을 추구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의 기도의 원리는 단순히 자신의 영성이나 성령의 감화에 쉽게 빠지는 무분별한 기도회와 쉽게 빠지는 무분별한 기도회와는 달랐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려는 올바른 기도를 추구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데 정부의 힘을 빌리거나 특정 부자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었다. 그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그 응답을 통해서만 사역을 계속하였을 뿐이다.

경이로운 것은 그런 그의 기도가 항상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기도하는 조지 물러에게는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그의 일기문은, 그의 담담하면서도 철저한 믿음을 보여준다.

물러의 일기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평생 의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는 말씀이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인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대리점 모집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향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용품, 세탁, 어항, 냄세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세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세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복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솥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Tel: (323) 316-6815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 (로레오 켈러리아)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전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김파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가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할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향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음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우드급 제리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차량), 제작, 연속영인체 전문
junimedia.com

전도용품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영범음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영범음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티슈 1,000set(\$180)
고급형광 필터슈!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티슈
▶ 볼펜 ▶
▶ 전도용티슈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시에 주문을 받으실 시에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써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 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Alex Shin Fleet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Good Shepherd Presb. Church and PCUSA Involved in Lawsuit Over Church Property

BY RACHAEL LEE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of ECO is currently involved in a lawsuit regarding church property with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PCUSA) and the San Gabriel Presbytery of PCUSA.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located in Rowland Heights, was one of the largest Korean PCUSA congregations in California, and had pursued to be dismissed from the PCUSA under its presbytery (San Gabriel Presbytery)'s Gracious Dismissal Policy (GDP) since 2012, but the presbytery stopped the GDP process before its completion earlier this year. The minority congregation that desired to remain within PCUSA stayed in the presbytery, while the majority of the congregants (including then senior pastor Reverend Tae Hyung Ko) disaffiliated themselves from the PCUSA and joined the ECO, becoming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of ECO. The ECO congregation sent a letter to the San Gabriel Presbytery of its decision to affiliate with the ECO in late March, and officially joined the denomination in May.

Currently, some 40 members remain i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PCUSA) and some 900 members are a part of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of ECO.

However, the San Gabriel Presbytery and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PCUSA) sued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of ECO, Reverend Tae Hyung Ko, and the church session members on July 9 for continuing to use the same church property even after disaffiliating themselves from the PCUSA.

"The AC [Administrative Commission] has been informed that ECO has accepted Rev. Ko and his followers ... as a member church, and that ECO has specified that ECO claims no interest in the property," stated the San Gabriel Presbytery in a statement of resolutions on July 6.

"The Presbytery of San Gabriel has not dismissed KGSPC. On this basis, the AC determines that the ECO church is an unincorporated fellowship of ECO, with no rights to the property and no right to utilize the tax-exempt status or corporate standing of Korea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of Rowland Heights, a particular congregation of the PC(USA)," the presbytery added.

Previously,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held two congregational votes to leave the PCUSA. On March 23, 2014, with representatives of the San Gabriel Presbytery present, 817 members voted, of which 738 voted in favor of dismissal from the PCUSA, 74 voted against, and 5 votes were discounted. On March 22, 2015, 745 members out of 852 total members cast their votes on disaffiliation from the PCUSA, and out of those, 709 voted to leave the denomination, while 33 opposed leaving, and 3 were dismissed due to illegibility.

Under the presbytery's GDP, the next step after the results of the first vote in 2014 would have been the presbytery's vote on dismissing the church. However, the presbytery stopped the GDP process after a minority group continued to persist that the church should remain in the PCUSA.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of ECO also states it previously offered to give the San Gabriel Presbytery \$1.28 million — twice the \$635,000 amount that was initially requested under the presbytery's GDP — to keep the property.



Korean American faith leaders met with David Siegel, the Consul General of Israel (third from left, bottom row) to discuss ways the Jewish and Korean American communities can work together to further advance the greater community. (Photo courtesy of KCCD)

Korean and Jewish American Leaders Discuss Future Partnerships in Serving the Greater Community

BY RACHAEL LEE

The Consul General of Israel invited some 20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faith community to a luncheon at the Consulate General of Israel in Los Angeles on August 24 as a gesture to work together to serve the community and for the further advancement of the Jewish and Korean communities in Southern California.

"The Korean and Jewish com-

munities share many things in common," said David Siegel, the Consul General of Israel, and expressed a desire for the two communities to work together in those aspects to "play a greater role in advancing the community at large."

Some of those in attendance included Hyepin Im, the president of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Michael Lee, the senior pastor of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Sam Park, the senior pastor of Community Church at Holliston; Woogie Kim, the director of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Biola University; and Sam Koh, the lead pastor of Hillside LA, the English congregation of Los Angeles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 among others.

The group discussed various issues, including the need to infuse their respective ethnic cultures in the next generation and build

them up into influential leaders of the future. A regular meeting between members of the Jewish and Korean American communities was suggested to form a collaborative leadership program for young people.

The need to work toward peace was also emphasized during the luncheon, as both Israel and South Korea are involved with other countries with nuclear power (Iran and North Korea).

Bringing Clean Water and the Gospel to the Ki'che' People



The mission team from A Cup of International was able to hold a VBS at one of the village's public schools. (Photo courtesy of A Cup of International)

BY RACHAEL LEE

A Cup of Water International, a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 that focuses on sharing the gospel and providing clean water to various people groups around the

world, recently visited Guatemala, specifically the Ki'che' people, from June 16 to 29. During this recent trip, the team was able to continue the process of installing a water system to provide clean water to the villagers, as well as en-

gage more directly in evangelism.

Most of the Ki'che' people, who live in a mountainous region in Guatemala, drink from dirty water sources in the mountain, said missionary Daniel Kwon.

During a previous trip to this village, Kwon said the team installed what he called a "spring box" to protect the mountain's spring water. This time, the team installed pipes that would be able to bring the clean spring water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The work that's left, Kwon said, is creating a water tank to store that water once the pump pushes the water up through the pipes.

"Please pray that we'll be able to complete the process to provide clean water to the Ki'che' people," Kwon said in his mission report.

Kwon and the team was also able to share the gospel to many villagers, as they visited homes door to door to share the gospel. They also shared the gospel to children playing soccer in the village and even to people in the village bar.

"Everyone listened joyfully to

the message of the gospel," Kwon shared. "About 100 people committed their lives to Jesus and received Him during our trip."

The team was also able to host a VBS at one of the schools in the village, in which the whole student body participated.

Students learned more about God in small group Bible studies, watched the Jesus film, and even danced along to worship music alongside the village mayor, who is also a pastor.

"It was moving to be able to share God's Word so freely in a public school," Kwon said. "I pray that only His name would be lifted high in all the world."

A Cup of Water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visited villages in Nicaragua, Kenya, Ethiopia,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udan, the Dominican Republic, Haiti, Mexico, and numerous other countries to help provide clean water through water pumps or water wells, create awareness on hygiene, and share the gospel to the villagers.

Coalition Gathers Signatures to Oppose Transgender Bathroom Law

BY RACHAEL LEE

A coalition of individuals and non-profits has been working to obtain signatures for a petition to fight a law that allows transgender individuals to use sex-segregated facilities in public schools, such as restrooms, according to the gender they identify with, rather than their biological sex.

The coalition, called Privacy for All, submitted a ballot initiative to California Attorney General Kamala Harris in April called the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which would require individuals to use public facilities according to their biological sex. Official petitions were made available for signatures in mid-July, and the group has been gathering support since. Privacy for All aims to gather 500,000 signatures by November 20th.

This is a move to go against California Assembly Bill 1266, a law sponsored by Assemblyman Tom Ammiano (D-San Francisco) that requires public schools to allow students to use their sex-segregated facilities and participate in their sex-segregated programs according to the gender students identify with, regardless of their biological sex.

Supporters of AB 1266 argue the bill protects transgender students from being bullied and from being hindered from achieving their

highest academic potential. Opponents argue such a law violates the privacy and hinders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individuals using the facilities and participating in the school's programs.

The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would require individuals to use public sex-segregated facilities only according to their biological sex, which the act defines as "the biological condition of being male or female as determined at or near the time of birth, or through medical examination or as modified by Health & Safety Code § 103425." The inclusion of that last portion — "as modified by Health & Safety Code § 103425" — allows individuals who have undergone treatment for gender transition to use facilities according to their new biological sex.

The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also makes exceptions for family restrooms, single use restrooms, and instances in which a child or person with a medical condition needs assistance from another individual.

"The bathroom policing initiative would unfairly single out transgender people and people who don't meet stereotypes of what it looks like to be male or female for interrogation and exclusion," argued Kris Hayashi, the executive director of Transgender

Law Center, regarding the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Brad Dacus, the president of the legal group Pacific Justice Institute, which is a part of the Privacy for All coalition, argued that the proposed bill will "allow Californians to reclaim essential privacy rights."

"We can and we must be both compassionate toward those suffering from gender identity dysphoria, and exercise common sense in not casting aside crucial constitutional rights like privacy. This initiative strikes the appropriate balance," Dacus argued.

This is the second time AB 1266 has come under fire since it became law, following the first attempt to make the bill invalid in 2013 by a coalition called Privacy for All Students.

In 2013, Privacy for All Students sought to put AB 1266 itself — which only discusses the use of facilities within public schools — on the voter ballot and let voters decide whether it should be California law. This new proposal by Privacy for All is different in that its proposal includes a completely new law that discusses not only facilities in public schools but facilities in government buildings in general, and also protects businesses from facing lawsuits for requiring individuals to use their facilities according to their biological sex.

In other words, if the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were to qualify and make it onto the voter ballot, and if the voters were to vote in favor of the bill, it would not only prove AB 1266 ineffective but its effects would reach beyond the public school system and would apply to all government buildings.

Privacy for All Students needed a little over 500,000 valid signatures in 2013 for the proposal to qualify. 619,381 signatures were gathered by the November 10, 2013 deadline, but only 487,484 signatures were considered valid by the Secretary of State Debra Bowen's office, falling short of the quota requirement.

This year, Privacy for All needs 365,880 valid petition signatures for the ballot initiative to qualify, but the coalition is aiming to gather several hundreds of thousands more to account for discounted signatures.

(The amount of signatures needed this year differs from that which was needed in 2013 because the amount required must be equal to 5 percent of the votes that were cast for all candidates for Governor during the most recent gubernatorial election. A lower voter turnout in the 2014 gubernatorial election rendered for a lower amount of signatures required for the proposal to qualify this year.)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